

8-16-2009 주간 메시지

성서: 시편 146:1-10

본문: 여호수아 4:1-24

제목: **보이는 표적과 보이지 않는 표적**

이집트를 나왔던 첫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40년을 헤메다가 죽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삼일 만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오늘날은 어떤가? 율법을 따라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는 유대들과 자신들의 종교를 따르는 모든 이방인들 역시 지난 이천 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죽었다. 그러나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즉시 구원받아 영원한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을 하셨다: **“요단 한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견고하게 선 곳에서 돌 열둘을 취하여 그 돌들을 옮겨 너희가 오늘 밤 유숙할 곳에 그 돌들을 두라.”** (3 절)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두 지파로부터 한 사람씩 이미 예비해 놓은 사람들로 하여금 요단 한 가운데 하나님의 궤 앞에 있는 돌들을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메고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메어다 놓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한 표적으로 남기시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게 원하셨던 것이다. 그렇다!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나 요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증거하여 자손들 역시 그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요단 한 가운데 있었던 돌들이 영원한 기념물이 되어 하나님의 표적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무엇으로 증거를 삼아 하나님의 표적을 증거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증거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그렇다!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요단 가운데 있어 죽었던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살아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바로 요단 가운데 있어 죽었다가 살아난 돌임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6)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님은 반석이시며(고전 10:4) 베드로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은 **“돌”**이 되는 것이다. 본문에서 돌을 취하여 기념물로 삼은 것처럼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돌이 되어 자신들을 요단같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스스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바벨론 왕이 본 형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가득

채운 것처럼(단 2:31-35)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온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로 채워질 것이다

본문에서 또 한 가지 기념물을 세움을 볼 수 있다. 여호수아가 요단 한 가운데에 돌 열둘을 세우고 언약궤를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 자리에 두었다. 요단 물이 제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 돌들을 다시 볼 수 없었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요단 한 가운데 있었으며 본문에서는 **“그 돌들이 오늘까지도 거기 있더라.”** (9 절)고 증거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요단을 건넜을지라도 우리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요단 속에 장사되어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갈 2:20)고 증거했던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구원받은 새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된 옛 사람에 대하여도 증거해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숨겨져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표적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숨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몸의 장애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못해도 홀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나 주를 위하여 지하교회나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는 사람들 등등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많은 남종들과 여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물이 일어서게도 하시고 다시 흐르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이 사십 년 전 이집트에서 시작한 유월절이 구원의 시작이며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유월절이 구원의 완성임을 알게 하셨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 12:2)라고 증거했다. 주님께서도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계 1:11)고 친히 말씀하셨다. 우리도 우리의 몸이 죽지않고 썩지 않는 새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일에 힘쓰며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할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본다. **첫째**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로부터 나온 약 사만 명의 무장한 군사들이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기도함으로써 영적 전쟁을 자원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있는 것이다 (엡 6:11-18). **둘째**는, 백성들이 요단을 모두 건널 때까지 요단 한 가운데 머물렀던 궤를 멘 제사장들이다. 이들은 오늘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말씀을 믿음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또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딤후 2:12).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할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8-16-2009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146:1-10

Main scripture: Joshua 4:1-24

Subject: **Visible sign and invisible sign**

The first generation of Israel out of Egypt had wandered forty years in the wilderness and died because of their unfaith; they couldn't enter Canaan. But the remnant of Israel that were born in the wilderness and obeyed Joshua, the servant of God could enter Canaan crossing Jordan in **three days**. What about today? The Jews that insisted their righteous according to the law couldn't have entered the kingdom of God for two thousand years, nor the Gentiles that have followed their religion. But they that have believed in the Lord Jesus Christ, greater than Joshua which died on the cross for the sin of the world, and rose again the third day have been able to enter the kingdom of God, which is the eternal Canaan, whether they are Jews or Gentiles.

God commanded through Joshua: **"Take you hence out of the midst of Jordan, out of the place where the priests' feet stood firm, twelve stones, and ye shall carry them over with you, and leave them in the lodging place, where ye shall lodge this night."**(v3)

Joshua called the twelve men, whom he had prepared of the children of Israel, out of every tribe a man: And Joshua said unto them, Pass over before the ark of the LORD into the midst stone upon his shoulder, and carry them over to leave them in the lodging place. God wanted the stones as a sign so that children of Israel might have faith in God. Yea! They that died with Christ on the cross and rose again by faith to enter the kingdom of God crossing Jordan have already seen the sign of Jonah. Therefore they have to testify of the sign to the children so that they may be saved by faith seeing the sign.

The stones which were in the midst of Jordan became an eternal memorial to testify of the sign of God. How they that have crossed Jorda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could testify of the sign of God?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¹⁷Therefore if any man be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old things ar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2Cor. 5:17)

Yea! Nowadays, whosoever that is saved can testify of themselves that died in the midst of Jordan, and rose again in Christ. In other word, the children of God can testify of themselves as the stones died in the midst of Jordan, and rose again. When Peter confessed, **"Thou art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Matt. 16:16), Lord Jesus answered to him, **"That thou art Peter, and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Matt. 16:18) "Peter" means a "stone". Lord Jesus is the **"Rock"**(1Cor. 10:4); and they that believe in the Lord Jesus as Peter are **"stones"**. As the stones in the midst of Jordan were chosen as memorials, all the Christians may testify as the stones of the life that they received in the midst of death. As the **"stone"** smote the image that the king of Babylon saw became a great mountain, and filled the whole earth (Dan.

2:31-35), the earth shall be filled with the people of God and his children when the Lord Jesus come again.

We find another memorial in the main passage. Joshua set up twelve stones in the midst of Jordan, in the place where the feet of the priests which bare the Ark of the Covenant stood. When the waters returned unto their place, the stones couldn't be seen anymore, but they were still in the midst of Jordan; scripture still testify, **"They are there unto this day."**(v9)

Even though we are saved, and crossed over Jordan, our old men are dead and are still buried in the midst of Jordan.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I am crucified with Christ; nevertheless I live."(Gal. 2:20) Yea! We have to testify not only of the new creature, but also the old men died on the cross with Christ, and buried with him.

This gives us another important message that there may be many invisible servants of God that testify of the sign of God. Their names may not be known to the world, but they still testify of Christ hiding them; they may be in the permanent handicap or in underground churches or in prison so that they may be able only to intercede for the kingdom of God. They may be only known to God as man-servants or woman-servants.

God is the Almighty One that could make the waters stand up or return unto their place. God made them keep the Passover in Canaan so that they might know the Passover in Egypt as the first salvation, and the other one as the last salvation. Apostle Paul testified, **"²Looking unto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Heb. 12:2)

Even Jesus Christ said into John, **"I am Alpha and Omega, the first and the last."**(Rev. 1:11)

We are to look forward the eternal inheritance until our salvation is completed with patience when we have incorruptible and immortal body to enter the kingdom of God.

We may notice two kinds of men that we may imitate. **The first one** is about forty thousand of the children of Reuben, Gad and half the tribe of Manasseh that prepared for war passed over armed before the children of Israel. Nowadays, there are army of Christ that wear the whole of armor of God, and pray always with all prayer and supplication in the Spirit, and watching thereunto with all perseverance and supplication for all saints to be ready for the spiritual warfare (Eph. 6:11-18).

The second one is the priests that bore the ark until all the people of Israel cross over the Jordan. There are also men of faith that overcome all the fears, and have faith in the word of God, and encourage all the saints for them to proceed without fear. Even nowadays, God is looking for them that volunteer to be the army of Christ; and he wants to give the blessing to reign with him when they wear the whole armor of God to suffer with the Lord (2Tim. 2:12). The door is widely open for us to answer his calling. What about dedicating unto his work? Hallelujah!